

## 지적자유와 도서관: IFLA/FAIFE 활동을 중심으로

장 덕 현\*

### 들어가며

정보화의 진행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지역간,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 각 부문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도서관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들어 한국도서관협회와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와의 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도서관/정보서비스 부문의 대표적 국제기구인 IFLA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와 관련된 활동이 두드러진다. IFLA는 특히 산하의 FAIFE위원회(정보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 Committee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를 주축으로 세계적으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가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은 정보접근에 대한 하부구조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공공도서관과 기존 도서관들에 대한 지원부족은

우리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right to know)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는 척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적 자유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계의 국제기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우리 도서관계에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정보시대, 왜 지적 자유가 문제되는가?

민주사회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습득, 이용하며 이렇게 형성, 변화된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과 정보는 사회의 공적 자원(public resource)으로 여겨져 왔으며, 무료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공공도서관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이 잉여가치를 창출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지식과 정보가 노동을 대체하는 이른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공공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FLA/FAIFE 위원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위상 또한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73년 다니엘 벨(Daniel Bell)이 후기산업사회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에서 산업사회의 종언과 함께 지식을 조직화(codification)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지적기술(intellectual technology)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정보화”는 현대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벨의 예측에 동의하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건은 컴퓨터의 대중화가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며, 평등하고,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로 바꾸어 놓을 것이며, 지식이 곧 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수집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지닌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여 새로운 파워엘리트 그룹을 구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벨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이 아닌 “지식과 정보”가 후기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될 것이며, 따라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하는 것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벨의 예측을 비판하는 학자들의 반박 또한 만만치 않은데, 그들은 벨의 주장을 기술결정론, 기술관료주의라고 비판하며, 정보의 상품화란 결국 실제로는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 조건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시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은 공적인 자원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품, 즉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으로서,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는 지식의 장이란 지식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광장(forum)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을 치루어야만 원하는 지식을 구입할 수 있

는 시장(market)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식과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제공하는 일로 자본을 획득하는 이른바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며, 정보 이용자는 더 이상 “이용자”가 아닌 “소비자”로서만 시장체제 내에서 존재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며,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므로, 지식/정보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 축적과 부족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것을 예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산업사회를 규정하던 자본가와 노동노동자(wage-laborer) 사이의 갈등은, 이제 정보부유층(information-rich)과 정보빈곤층(information-poor) 사이의 갈등으로 전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상품의 가치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의 희소성을 높이려는 시도 또한 늘어날 것이다. 요컨대 지식과 정보가 사유화되고 그로 인하여 지식의 공공성이 희박해져 가는 것이 정보사회의 특징이라면, 정보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이 사회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습득,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설 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 사실, 어떠한 지식도 평화롭고 자유롭게 유통되지는 않는다. 지식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언제나 권력에 의하여 사용되고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푸코(Foucault)의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식과 권력은 단순히 관계가 있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지식을 창조하고 또 제거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결국 권력이 곧 지식이며 지식이 곧 권력이기 때문이다.

1) Langdon Wiener. "Mythinformation." in: *The Whale and the Reactor: A Search for Limits in an Age of High Technology*, ed. Langdon Wiener, 98-117.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6: 103.

## 지적자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정보사회에 들어서 국가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또한 정보의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정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며, 이에 따라 이미 많은 나라들이 지적자유에 대한 법령이나 선언문들을 명문화 해 놓고 있다. 국민의 지적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에 매우 민감한 미국의 경우 도서관권리선언을 통하여 기초작업을 한 이래,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위원회와 각 주의 지역도서관협회들이 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구체적으로는 각 개별 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이나 도서관사서의 근무 지침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지적자유에 대한 보장에 관한 규정과 조항들이 명문화되어 있다.

최근 세계 150여개국의 도서관/전문직 단체들로 구성된 국제적 조직인 IFLA에서도 특히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관련되는 지적자유 문제를 다루는 전문기구인 FAIFE위원회를 중심으로,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sup>2)</sup> 1997년 조직된 FAIFE위원회는 현재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문제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들 중 도서관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문제들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세계 각국 도서관계의 지적 자유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 위원회 활동의 기본적인 사상은 우선, 지적자유는 개인의 의견을 유지, 표현하고 정보를 추구, 입수하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둘째, 지적자유는 민주주의

의 기본이며, 셋째 지적자유는 도서관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FAIFE위원회는 우선 도서관사상과 지적자유와의 필연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서관계와 협력하여 출판활동과 컨설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1년에는 격년간의 국제보고서(IFLA/ FAIFE World Report)를 발간하여 세계 46개국을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영역에 있어서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 바 있다. 또한, 정치적 혼란기에 있는 제3세계 국가에서의 도서관과 지적자산 파괴 행위에 반대한다거나, 선진국 도서관전문단체의 저개발국 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을 주장하고, UNE-SCO나 Amnesty International 등의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FAIFE위원회는 인터넷 선언(Internet Manifesto)을 준비 중인데, 이 선언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인터넷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려는 시도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을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인터넷상의 검열 등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세계각국의 도서관과 사서들이 정보접근의 자유라는 도서관의 기본이념을 방어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도서관/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지적자유를 구현하는 것은 사서들의 중요한 책임사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2) 1948년 12월 10일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9조는 인간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개인의 의견을 취할 자유와, 국가간의 경계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획득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지적하고, 이러한 책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이 도서관에서 지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FAIFE위원회 인터넷현장의 주요 목표이다. 이 현장은 2002년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열리는 IFLA 총회와 2003년의 UNESCO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지적자유와 도서관

정보화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산업생산경제에서 지식/정보경제로 변화시켜놓고 있다. 정부의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으며, 자유시장체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조직, 확산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 또한 증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정보는 상품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며, 정보를 정의나 복지 등의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슈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의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할 때, 지식과 정보는 공공자원이며 주의에 산재해 있는(!) 공공도서관 등의 공익기관들을 통하여 비용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치는 심각한 타격에 직면한다.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은 기능을 다한 추억 속의 기관으로 잊혀져 가거나, 혹은 단순히 책창고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수집, 조직하여 사회의 일부 그룹이나 개인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지적 권력의 상징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sup>3)</sup>

지적자유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보의 흐름의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본의 힘인지

도 모른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누구나 나이, 출신지역, 거주지역,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읽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며,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도서관이다. 이웃 사람들이 가끔 공공도서관에 찾아와서 교육, 문화, 사상에 접할 기회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시민의식은 성장한다. 도서관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며, 어떠한 난해한 의견과 논쟁도 접할 수 있는 광장이다. 도서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며 그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곳이다. 이런 중요한 역할은 모든 경제적 가치를 초월하기에 충분하다. 도서관의 역할은 민주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의 사회적 의의는 언제나 정치적인 영역에 존재하며, 도서관에 경제성의 잣대를 갖다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4)</sup>

따라서, 도서관의 지적 자유 보장 활동은 반드시 검열철폐 등의 거창한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편견이나 배타성을 배제하고, 체계적, 망라적이며 활발한 장서개발활동을 통하여 도서관 장서를 항상 역동적이고 유용하며, 다양한 여러 관점을 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함으로써 도서관장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적 자유 보장 활동일 것이

3) Mary Beard, "Cleopatra's Books," London Review of Books, (1990, 2): 11.

4) Lester Asheim, "Librarians as Professionals," Library Trends, 26(1978): 253.

다. 또한 이용자의 관심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이용자 커뮤니티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른 이용자그룹의 선호나 편견에 의하여 특정 이용자 그룹의 요구가 배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하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법적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장서, 디자인이 잘못된 OPAC, 불친절한 직원, 또는 어두운 자료실 등 모든 것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독서권(freedom to read)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의 역할은 지식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당함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위치나 신분에 의하여 사람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해 주는 것, 즉 한마디로 정보정의(information justice)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자유 자체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하는 문화적 기구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서들은 버드솔의 주장처럼 정치적 운동성을 지니고, 도서관서비스의 유료화와 정보의 사유화 독점화에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5)</sup>

이를 위해서 사서직은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개인적인 부나 특권보다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정보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공적자원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도

서관의 전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up>6)</sup>

정보화와 세계화를 새로운 세기의 화두라 본다면 세계 도서관계가 지적자유 보호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어느새 지적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와 영역들은 도서관과 사서직의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랑가나단(Ranganathan)의 “도서관학의 다섯 가지 법칙” 가운데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Books are for use)이며,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Books are for all)이라는 평범하고 소박한 명제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 도서관인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문화 편집실입니다.  
도서관 소식과 사진, 현장에서 느낀 소감을 보내주세요,  
도서관인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E-mail : shjcap@hitel.net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5) William F. Birdsall. "Librarianship, Professionalism and Social Change." Library Journal, 107(1982): 226.

6) Henry T. Blanke. "Librarianship and Political Values: Neutrality or Commitment?" Library Journal, 114(1989): 41.